

피터 Zumthor의 건축에 나타나는 물성의 감성적 표현 특성 분석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ity Expressed on Peter Zumthor's Projects

류호창, 김석영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Ho-Chang Lyu(hclyu@kku.ac.kr), Suk-Young Kim(afour@kku.ac.kr)

요약

감성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에도 건축 재료의 물성을 통한 감성적 교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에 피터 Zumthor의 작품을 중심으로 물성을 이용한 감성적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를 통해 물성의 감성적 해석과 함께 물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특성으로 구축성, 지역성과 장소성, 시간성, 공감각성, 지속가능성을 추출하였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Zumthor의 작품 중에서 물성의 감성적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중심으로 실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 Zumthor는 창의적인 구축방식을 통한 구축적 표현, 지역의 재료와 구축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역성과 장소성의 표현, 오래된 재료와의 대비나 재료의 풍화작용을 이용한 시간성 표현, 오감적 체험을 동원하는 공감각적 표현,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및 구조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표현 등을 활용하여 물성의 감성적 호소력을 고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사용자 감성에 호소하여 공간의 감동을 고양시키는 디자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감성적 표현 | 물성 | 피터 Zumthor |

Abstract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spects in design has been discussed and researched actively, researches mainly focusing on the emotional aspects expressed through architectural materials have been rare. Thus, Previous researches were investigated to draw typical categories to express emo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architectural materiality. Case study shows Zumthor's practical methodologies in these state: tectonic expression with creative tectonic methods and local residents' voluntary-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enhancement of intimate emotional ties with the local heritage through the usage of local materials and traditional construction techniques; coexistence of past and present materials, and showing the change of materiality via weathering; activation of synesthesia by touching multiple senses; sustainability by using environment friendly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The results can be hopefully helpful to future researches related to emotional aspects on spatial design.

■ keyword : | Emotional Characteristics | Materiality | Peter Zumthor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11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3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07일

교신저자 : 김석영, e-mail : afour@kku.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의 역사는 재료의 역사와 항상 병행한다. 건축과 재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료의 발견은 새로운 공간형태를 구축시키는 시발점이 되어 왔고,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은 건축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지향적, 형태구축적 관점에서의 발전에 치중되었고, 건축 재료 또한 단순히 건축형태를 형성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에만 주된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간사용자가 배제된 채 한동안 일관되게 공간적 논의만이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졌고, 물질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피적 효과에 더 치중하여 표층적 접근을 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에 대한 호소력과 건물의 존재 의미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최근 디자인 변화의 중심에는 ‘감성’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자리 잡았다. 기술적 발전에 의존하여 형태적 접근이나 표층적 치장에 치중하던 자세에서 회귀하여 공간사용자 중심적 접근, 즉 감성과 경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물질의 다양화와 감성 중심의 디자인이 건축의 대세가 되었다. 특히 20세기말부터 감성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공간구성에 따른 감성적 특성, 공간사용자의 감성적 변화 및 선호도 조사 등이 주 연구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공간사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축 재료의 물성을 통한 감성적 교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료의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족적인 재료의 표현과 사용자와의 감성적 교감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터 Zumthor(Peter Zumthor) 작품에서 물질의 창의적 해석을 통한 감성적 표현 특성을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재료의 물성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감성적 호소력을 제공하

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은, 재료의 물성과 감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관계성을 우선 살펴본 후, Zumthor 건축에서의 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몇 가지의 주된 감성적 접근 유형을 추출한다. 그 결과를 기준으로 Zumthor 작품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표현 특성을 정리해본다.

연구 범위는 Zumthor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감성적 표현과 재료의 물성적 특징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되 선행연구에서 이미 자주 다루어진 건축적 배경과 일반적 특성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사례의 범위는 물질의 감성적 표현 특징이 큰 완성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실증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현대 건축에서의 재료와 물질의 의미

모든 사물과 형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속성인 물질(materiality)을 통해 하나의 객관적 세계와 결합한다. 철학적으로 자아에 대립된 물질의 보편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물질은 물질에 존재하는 특성으로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물질의 느낌을 의미한다. 즉 물질이 건축에 개입되면 건축의 실제적 요소로서 재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재료에 건축가의 의식과 개념이 개입되면 물질로 인식된다. 건축적 의미의 물질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광택, 무게감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특성을 의미하며,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1]. 이와 같이 건축에서 재료는 자체적 형상 언어를 통해 본질적인 가치와 물질로서의 적용성을 나타낸다.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도 건축가의 임무는 건물 재료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 그런 관점에서 재료는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이고, 재료에 대한 논의는 곧 물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즉 재료의 속성이며 동시에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내재된 속성을 의미하는 물질은 건축 역사를 관통하며 주된 표현 수단이며 관심사였다. 특히 근대 이전 건축에서 재료가 그 자체의 물성 범위 내에서 사용

되었다면, 현대건축에 들어와서 물질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배경으로 건축가 개개인의 인식이나 표현 방법에 따라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물성은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정의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즉 모든 물질은 적용성과 생산 수단에 따라 나름의 형상언어를 가지게 되고, 구축과정에서 이러한 물성의 발현은 건축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2. Zumthor 건축의 재료와 물성

Zumthor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절제된 재료를 사용, 명료한 건축을 지향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재료 본연의 특질을 공간 언어로 바꾸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건축가이다. 그 배경에는 젊은 시절 그라우분덴(Graubünden) 지역에서 유적보전 건축가로서의 경험이 그에게 자연스럽고 질박한 건축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구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Zumthor는 건축 재료의 감각적 특성과 체험에 바탕을 둔 공간을 지향하여 주변 환경과 재료의 물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시간의 흔적을 담아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만든다. 그는 건축의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건축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경우 재료의 물성을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며 핵심요소로 활용한다. 즉 공간구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재료의 물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전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재료 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고 각 소재의 본질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재료 자체가 시적인 것은 아니므로 건축가가 각 소재에 의미있는 상황을 부여하는 경우에 소재에는 시적인 속성이 생긴다”라고 말한다[3]. 실제로 그는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인 석재, 목재, 벽돌 등을 소재 고유의 특질들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새로운 색, 크기, 비율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창의적인 재구성 방법을 통해 새로운 시적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 그는 공간의 재료가 사람들의 건축적 기억과 경험을 형성시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기억과 경험에 호소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

3. Zumthor 건축에서 물성의 감성적 해석

화려한 건축적 외형이 아닌 공간의 감성적인 질(sensual quality)이 가장 중시되는 Zumthor의 건축에서 공간이란 반드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장소이다[4]. 그런 관점에서 Zumthor의 건축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상학의 원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Zumthor는 건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소 건물을 체험해봐야 한다고 믿고 있다[5]. 따라서 Zumthor의 건축에서 공간은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이다. 그는 현대 건축이 시각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평하며 오감적 접근을 강조한다. 즉 이용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재료의 질감, 향, 소리, 촉감 등이 동원된 공감각을 통해 건축 공간의 지각적 경험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Zumthor는 재료의 물성이 사람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기억을 통해 장소를 특징지음으로써 새로운 세계와 개인을 관련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주된 표현 수단의 하나가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 재료도 건축되는 지역의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단순히 지역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자들의 심리적 연계성을 구축하려 한다. 이와 함께 Zumthor는 재료와 물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제된 단순함을 지향한다. 즉 최소화된 재료의 종류, 단순한 접합 방법과 절제된 디테일, 엄격한 비례와 스케일 등을 유지하며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물성의 감성적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4. 감성 표현의 유형적 분류

Zumthor 건축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감성적 표현의 유형적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물성의 감성적 표현 특성을 정리해보면 구축성, 장소성, 시간성, 공감각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체험성은 복합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장소성은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성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과 장소성’으로 기술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1. 선행연구의 물성과 감성에 관한 핵심 키워드

연구자	연구제목	핵심 키워드
이상준 (2009)	피터 Zum터의 건축 공간에 나타난 표현 특징에 관한 연구	물질성, 장소성, 구축성, 연계성
우지연 (2010)	피터 Zum터의 썸 발즈에 나타난 감성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공간접근적 / 심미적 / 체험적 표현
이경락 (2010)	피터 Zum터 건축의 물성과 심성에 관한 연구	장소성, 시간성, 체험성
구만재, 이정옥 (2013)	장소성과 물성에 의한 공감각 연구	장소성, 공감각

우지연(2010)의 경우 공간접근적 표현, 심미적 표현, 체험적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공간접근적 표현은 장소성, 심미적 표현은 공감각성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그림 1]에서는 표현을 바꾸어 작성하였다. 또한 Zum터는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고,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공감대도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특성을 추가하였다. 물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특성의 도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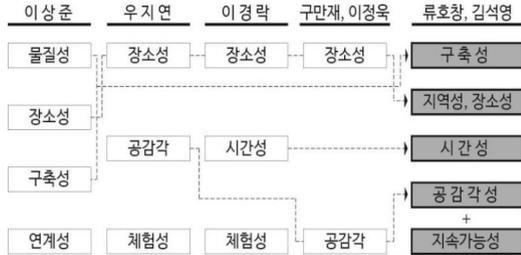


그림 1. 물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특성 도출

III. Zum터 건축의 물성을 통한 감성 표현

1. 구축성을 통한 감성 표현

구축성(tectonic)은 재료의 물성, 생산방식, 결합방식 등에 의해 건축이 현실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지각적, 미적 질서이며, 중력에 의해 작용되는 힘과 응력의 역학적 표현이 포함된다. 근본적으로 재료와 구축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즉 구축성은 건축요소의 구축적 통

합에 의해 형태와 공간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기술의 잠재력과 재료의 촉감에 의해서 개성을 갖게 된다[6]. 이와 같이 건축공간이 실체화되고 시각화되는 구축성은 결국 실체적 요소인 재료가 가장 근원적이고 필수적 대상이다.

Zum터는 모든 작품에서 최적의 다양한 구축방법을 사용하곤 했다. 전통적인 구축방식을 사용하거나,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이 직접 구축에 참여함으로 인해 동질감과 함께 애착과 친근함을 더해주기도 한다. 즉 친숙한 재료를 사용하되 창의적인 구축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친숙하고 편안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감성을 자극하여 신선한 감동을 만들어낸다.

2. 지역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는 감성 표현

건축에서의 지역성은 세월을 통한 지역의 전통 및 역사, 지역의 정체성, 삶의 철학과 방식이 담긴 특성으로,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런 지역성의 구현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적 특성과 풍토적인 요소를 담아 내면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 가능한 다양한 건축요소를 발전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7].

장소성은 건축과 대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장소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건축의 단독적이고 완결적인 의미에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주변의 관계에 사람들의 주관적 기억이 더해지면서 장소의 의미가 구축된다[8]. 같은 맥락에서 슈츠(Schulz)는 실존적 관점에서 장소는 삶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즉 특정 장소의 의미는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 환경의 한 단위로서 위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장소는 큰 맥락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동질성과도 관련되며, 그 안에서의 인간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물리적 상황이나 형상은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와 상징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장소는 물리적 조건이나 형태, 의미 등으로 구분되며, 인간과 상호적 관계의 속성을 가진다. 장소성의 형성 요소로 가시

성과 시간을 들 수 있는데, 장소가 가지는 특정 요소가 가시화됨으로써 체험이 가능해지고, 이런 체험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하게 됨으로써 장소성이 강화되고, 시각적 형태가 공간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 때 더욱 강화된다[9].

Zumthor 또한 건물이 장소와 기능에 정확히 부합한다면 굳이 예술적 장식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건물 자체가 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10]. 그는 특정한 지역적, 문화적, 장소적 상황과 교감을 유도함으로써 장소의 역사와 형태의 한 부분으로 성장해가는 실체적 건축을 지향한다. 따라서 Zumthor의 설계 작업은 부지를 살펴보고 자연적 환경, 지역적 건축 재료, 구축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소와 역사로 성장해가는 재료의 집합체를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공간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3. 시간성을 이용한 감성 표현

재료를 통해 역사적 시간성을 표출해냄으로써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계해보는 감성적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런 시간성은 인위적인 재료의 표면처리에 의한 인공적인 시간성이 있고, 2차적으로 비나 빛과 같은 자연환경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시간성이 있다[11]. 즉 건축 재료는 기후적 환경과 시간의 경과를 통해 질감, 색채, 광택, 부식 또는 부패와 같은 물질 본연의 속성이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출시켜 과거 시간 흐름의 흔적을 재료에 남도록 하거나 표현함으로써 시간성이 표현되고, 결국 주변 환경과 동화되어 지역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동질성, 역사성, 인생의 유한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

Zumthor는 역사적 시간성을 공간 언어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그의 건축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주변과 동화되어 일체화되는 재료로 구축되어 결국 그 장소에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대상으로 흡수된다.

4. 공감각을 동원한 감성 표현

건축공간에서의 감성적 경험은 공간 형태나 구조, 빛,

재료, 색, 소리, 냄새 등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적 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에 영향을 주어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공감각(synesthesia)이라고 한다. 즉 공감각은 다른 감각과의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건축공간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여 경험되기보다는 상호 작용하고 융합하는 감각적 경험과 더 관련이 있다[12]. 특히 재료의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요소를 동원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시각적 호소에 치중하는 건물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

Zumthor는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건축을 인지한다고 말하면서 실내를 커다란 악기로 비유하곤 한다. 건축적 경험에 있어서 소리, 온도, 냄새, 촉감 등을 자극하는 감각적 요소들이 공간을 연상하게 하는 요소임을 주장한다. 특히 재료의 물질적 영역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경험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감동적인 공간이 창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Zumthor는 그의 책 'Thinking Architecture'에서 재료 자체는 낭만적(poetic)이지 않지만 건축가가 재료를 통해 의미 있는 상황을 창출한다면 재료는 낭만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재료의 촉각, 후각, 음향적 특성 등에 관심을 집중하여 그가 설계하는 건물에서 재료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13].

5. 지속가능한 가치를 통한 감성 표현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서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개념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총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무엘 막비(Samuel Mockbee)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치를 환경과 건축이 서로 조화되는 것으로 보았다[14]. 동일한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은 미래에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의 '미래 유지가능성'으로 요약되지만, 협의의 지속가능성은 재료적 관점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특성에 국한되기도 하고, 포괄적 의미에서는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 수단과 관계된다. 즉 생태계 보존, 경제적 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환경친화적 접근과 상당 부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버나쿨러 건축과 공유되는 특

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된 자연관, 노동력, 그리고 생활풍습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노동을 통해 지역풍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재료 사용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자연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15].

IV.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대상과 범위

앞에서 추출한 5가지의 표현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쥘터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 작품 사례의 선정은 세계적인 건축전문 웹 매거진인 'Dezeen'에서 2009년 발표한 쥘터의 Key Projects에 소개된 12개의 작품 중 물성의 감성적 표현 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거공간 작품 중에서는 Gugalun House를 대표로 다루었고, 소규모 작품을 제외하여 7개 작품을 우선 선정했다. 이에 2011년에 발표된 Serpentine Gallery's pavilion을 추가하여 최종 8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례분석 작품

작품명	개요		이미지
Shelter for Roman ruins	년도	1986	
	위치	Chur, Graubunden, Switzerland	
	용도	로마유적 보호시설	
St. Benedict Chapel	년도	1989	
	위치	Sumvitg, Switzerland	
	용도	소규모 종교시설	
Gugalun House	년도	1994	
	위치	Versam, Switzerland	
	용도	스위스 전통가옥을 증축한 주거시설	
Thermal Vals	년도	1996	
	위치	Graubunden, Switzerland	
	용도	온천, 휴양시설	
Swiss pavilion, EXPO 2000	년도	2000	
	위치	Hannover, Germany	
	용도	하노버 국제 박람회 스위스관	

Brother Klaus Field Chapel	년도	2007	
	위치	Mechernich-Wachendorf, Germany	
	용도	개인 종교시설	
Kolumba Museum	년도	2007	
	위치	Cologne, Germany	
	용도	교회 유적 보존 및 전시시설	
Serpentine Gallery's pavilion	년도	2011	
	위치	London, England	
	용도	갤러리 부속 임시 파빌리온	

2. 사례분석

표 3. 구축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작품명	이미지	표현 특성
Shelter for Roman ruins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한 결합 구조로 목재를 루버 형식으로 적층시킴으로써 바람과 빛이 자연스럽게 투과되어 목재 외피의 존재감은 약화되고 유적은 부각되는 효과
St. Benedict Chapel		작은 싱글 조각들을 무수히 반복시켜 구축한 외벽은 마치 대지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나무의 수피와 같아 보이며 대지와 일체감 형성. 실내공간에서 재료 및 구조를 덧붙임 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솔함은 종교적 겸손함을 더욱 고양시키는 분위기 구축
Gugalun House		큰 도리를 엮어서 시공하는 그리스 지역의 전통적 축조법을 사용하여 지역적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
Thermal Vals		지역에서 생산된 3가지 다양한 두께의 발스 편마암(Vals gneiss) 판석을 적층시켜 150mm 높이의 유닛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적층시켜 5미터 높이로 구축된 내부 벽체는 자연석과 같은 물성으로 인식시키며 천연의 원시 동굴을 연상시킴
Swiss pavilion, EXPO 2000		스위스의 전통적인 목재 보존 방식을 응용한 적층구조와 그것을 금속 바이스로 가압하여 일체화시킨 구조의 솔직한 노출은 전통성과 의외성을 동시에 발현시킴
Brother Klaus Field Chapel		24일 동안 지역 농부들이 매일 50cm의 콘크리트를 겹겹이 붓고 다졌을 때 나타나는 질감을 보여주는 '다진 콘크리트(rammed concrete)' 기법을 사용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동질감과 애착심 극대화
Kolumba Museum		개방형 조적방식(일명 filter wall)은 빛과 공기의 소통기능 외에도 유적 위에 축조된 조적 벽체를 시각적으로 경량화시킴으로써 유적 위에 신축된 조적벽체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유적에 시각적 중량감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역사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 36mm 높이의 얇은 벽돌에 25mm 높이의 줄눈으로 시공함으로써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강화되어 개별적인 벽돌의 물성은 약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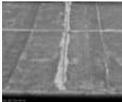
Serpentine Gallery's pavilion		목상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경량 목구조 위에 성김 마직물(scrim)을 덮고 모래를 섞은 검은색 도료를 바름으로써 마치 고풍하는 수도사의 복장을 보는 듯한 기척 없는 내재적 절제를 표현
-------------------------------	---	--

표 4. 지역성과 장소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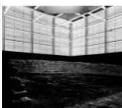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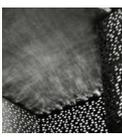
작품명	이미지	표현 특성
Shelter for Roman ruins		유적박물관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축되는 구조는 물리적, 시각적으로 최대한 경량화시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풍화되는 목재는 유적과의 시간적 간극을 좁혀줌으로써 동화되고 일체감이 강화됨
St. Benedict Chapel		낙엽송 목재 싱글(larch wood shingle)을 이용한 스위스 산골 마을의 전통적인 외피 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고,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동질적 관계 형성. 목재의 자연스런 풍화작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예배당 역시 세월을 보낸 나무 그루터기로 변모하여 대지와 일체화되는 과정적 감성 표출
Gugulun House		부지와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유지한 채 증축된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존 건물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하나가 되어 장소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기존의 목재와 새로운 목재를 함께 사용하여 시공
Thermal Vals		지역에서 생산된 발스편마암을 사용하고, 지형과 동화되는 구조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그 장소에 존재했던 본연의 암석 덩어리로 돌아가는 장소적 일체감과 상징적 연계성 시도
Brother Klaus Field Chapel		그 곳 대지의 흙과 섞여서 타설하고, 실제적인 공사과정에 지역민과 그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타설한 콘크리트 외벽의 구축 과정은 경비절감의 효과도 있겠으나 직접 공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성된 특별한 장소성이 더욱 크게 부각됨
Kolumba Museum		중세의 성 콜롬바(St. Columba)교회의 유적과 1950년대에 고트프리트 뵐(Gottfried B hm)이 설계한 예배당 유적의 온도 및 습도를 맞추기 위해 공기와 빛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조적구조를 사용하고, 내부의 노출 콘크리트는 거푸집과 폼타이의 자국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남아있는 유적과 이질감 없이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장소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줌

표 5. 지속가능한 가치를 통한 감성적 표현

작품명	이미지	표현 특성
Shelter for Roman ruins		자연회귀적인 방식으로 장소에 흡수되는 목재 사용. 건축 재료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절제된 재료의 사용
St. Benedict Chapel		대부분의 건축 재료로 목재를 사용하고 도장 등의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세월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대지와의 조화로운 관계 생성

Gugulun House		목재만을 사용하여 버나쿨러 건축의 공법과 재료를 공유하는 환경친화적 접근. 건축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의 형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증축
Thermal Vals		형태 및 재료로 대지와 일체화되는 옥상정원의 잔디식재, 온천 지대의 지열을 흡수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지역적 석재의 사용
Swiss pavilion, EXPO 2000		재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공을 최소화한 규격화된 목재를 단순히 적층시킨 후 바이스로 고정시켜 결합하는 구조방식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Brother Klaus Field Chapel		목재의 완전한 소각을 통해 자연으로 환원되는 상징적 구축방식 적용. 전문 기술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공 가능한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 서도 지속가능 방식 적용
Serpentine Gallery's pavilion		경량 목구조 프레임에 마치 캔버스로 마감하여 구축된 벽체는 해체가 용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극도의 절제적 디자인을 제안함

표 6. 시간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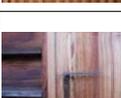
작품명	이미지	표현 특성
Shelter for Roman ruins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한 목재 루버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풍화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목재 특유의 물성적 변화는 유적과 점차 동화되어 일체화됨
St. Benedict Chapel		변형 및 퇴색된 외피의 목재 싱글과 자연스럽게 녹이 생기도록 한 계단 난간이나 출입문 손잡이 등의 금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동화됨
Gugulun House		기존 건물의 특징과 구축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오래된 목재와 새 목재를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범치시킴으로써 대조적인 시간차를 노출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차이가 축소되어 합일되어가는 시간의 경과를 경험하게 함
Thermal Vals		매표스를 지나 탈의실로 가는 긴 연결통로의 노출로부터 흘러내린 광천수의 철 성분으로 인해 얼룩진 벽의 흔적들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이 공간이 애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함
Brother Klaus Field Chapel		내부 벽체는 통나무를 태워서 드러나는 거친 질감을 그대로 노출시켜 영속적인 시간 개념을 보여주고, 내러티브는 태워진 나무재 위에 납을 부어 바닥을 완성함으로써 순간적인 시간성을 영속적인 성격으로 전환시킴
Kolumba Museum		잔존하는 유적의 구조 및 마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벽돌을 수직적으로 이어 쌓음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다층적 역사의 연속성을 물성의 공간 및 조화를 통해 표현

표 7. 공감각을 통한 감성적 표현

작품명	이미지	표현 특성
Shelter for Roman ruins		목재 루버 사이로 유입되는 빛은 내부로 균등하게 퍼져서 주간에는 내부에서 반투명한 외피로 인식되고 밤에는 내부가 투시되는 효과와 함께 내외부 공간 간에 소리가 소통되어 벽체의 존재감은 약화되고 유적의 비중은 증대됨
St. Benedict Chapel		공간 전체에 사용된 목재의 따뜻한 물성은 고장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더욱 부드럽게 인식되고, 목재만으로 이루어진 실내공간은 음의 반사가 최소화되어 실내를 평온한 명상의 공간으로 전환시킴
Thermal Vals		좁은 틈을 통해 유입되는 빛과 함께 차가운 느낌의 석재를 매끈한 표면의 얇은 커를 적층시킴으로써 마치 적층된 목재와 같은 부드러운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만들어내고, 음의 반사량이 큰 석재로 마감된 공간은 소리의 울림을 통해 동굴과 같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온천수의 후각적 자극에 의해 감각적 호소력은 극대화됨. 옷을 입었거나 벗었을 때 사람들의 구체적 감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광택 처리가 되었거나 화염처리된 석재, 크롬, 황동, 가죽, 벨벳 등을 세심하게 배치
Swiss pavilion, EXPO 2000		방문객에게 침묵을 통한 휴식과 명상의 체험을 주기 위하여 스위스에서 가지고 온 목재의 목향을 이용한 후각적 경험을 통해 스위스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목재로 이루어진 미로와 일명 '빛의 평면계획'에 따라 유입된 빛에 의해 목재 벽체는 시각적으로 반투명해지고 중량감이 감소됨
Brother Klaus Field Chapel		현장에서 녹인 납을 일일이 국자로 퍼서 바닥에 부어 만든 예배당 바닥의 촉각적 호소력, 숯을 만드는 방법과 같이 3주에 걸쳐 불태워진 후 제거된 내부 공간의 통나무 흔적과 탄 냄새, 가족이 비전문가로서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소 거친 마감의 촉감은 오히려 친밀감과 편안함을 제공
Kolumba Museum		외부의 빛과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한 filter wall은 외부와 내부의 연계, 과거와 현재의 연계를 증진시키고, 안마당에 깔아 놓은 잔 자갈은 걸을 때 청각적 효과를 제공,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따뜻한 색조를 띄게 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Petersen Tegle에 의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벽돌의 밝은 회색은 유적의 잔존물들과의 조화를 꾀하고, 개별적 물성을 최대한 감추어 전시되는 예술작품을 위한 배경 역할에 충실
Serpentine Gallery's pavilion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검정색 장막벽은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고, 조용히 내부 정원의 꽃과 덩굴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벽의 역할을 하며, 자체의 존재감은 점차 소멸되어 명상적 공간 분위기를 형성. 어두운 복도를 지나 접하는 중정의 화초는 감성적 공감각을 강화시키는 매질의 역할 수행

V. 결론

쥬더는 건축과 필연적 관계를 가진 재료의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물성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공간사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작가이다. 따라서 쥬더가 절제된 형태, 제한적인 재료, 창의적 구축방법 등을 통한 물성의 감성적 호소력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쥬더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성의 감성적 표현 특성을 구축성, 지역성과 장소성, 시간성, 공감각성, 지속가능성 등 5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축적 특성으로는, 친숙한 재료를 사용하되 창의적인 구축방법이나 과정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고, 지역의 전통적인 구축방식을 응용하거나 지역민들을 구축과정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호소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역성과 장소적 특성으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구축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소와의 연계성을 극대화시키고 사용자에게 친숙성을 제공하며, 인위적 가공과 처리의 절제를 통한 자연스런 풍화작용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시설과의 점증적인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간적 특성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료의 변형과 변색이 주는 친숙함을 적극적인 조형 언어로 활용하고, 오래된 소재나 구축방식과의 연접을 통해 시간적 이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합일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공감각적 특성으로는, 재료의 시각적 효과는 물론 후각, 청각, 촉각으로까지 재료의 감성적 지평을 넓힘으로써 공간의 체험성을 강조하고, 건축의 중심에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통한 특성으로는, 지역이나 주변 환경과 순응하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산업생산에 의한 획일적인 재료보다는 자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절제된 디자인과 가공을 통해 재료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식의 공감대를 확대시킨다. 이와 같이 쥬더는 작품에 대한 의욕보다는 재료의 물성을 매개체로 하여 사용자의 감성에 호소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건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사용자 감성에 호소하여 공간의

감동을 고양시키는 디자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구만재, 이정옥, “장소성과 물성에 의한 공감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제5호, pp.12-13, 2013.

[2] S. Abercrombie, *건축예술론*, 세진사, p.157, 1996.

[3]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Basel: Birkhäuser, p.11, 1988.

[4] 우지연, “피터 Zumthor의 썸 발즈에 나타난 감성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9권, 제3호, p.78, 2010.

[5] <http://www.archdaily.com/364856/happy-70th-birthday-peter-zumthor>

[6] 이상준, 김주연, 이종세, “피터 Zumthor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연구논문집, Vol.10, No.1, p.343, 2009.

[7] 김세영,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지속 가능한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2권, 제5호, pp.126-127, 2013.

[8] 김정호, 박희영, 조승구, “Peter Zumthor의 건축에 나타난 장소의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 pp.15-16, 2010.

[9] 구만재, 이정옥, “장소성과 물성에 의한 공감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제5호, pp.14-15, 2013.

[10] 페테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 나무생각, p.30, 2013.

[11] 유종호, 이정옥, “현대건축공간에 나타나는 비물성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p.9, 2014.

[12] Juhani Pallasmaa, *건축과 감각*, spacetime, pp.61-62, 2013.

[13]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Basel: Birkhäuser, p.10, 1988.

[14] 김세영,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지역성의 지속 가능한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2권, 제5호, p.130, 2013.

[15] 임영환, “지역주의 건축의 현대적 해석과 지속가능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 p.130, 2013.

저 자 소 개

류 호 창(Ho-Chang Lyu)

정회원



- 1977년 8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사)
- 1990년 12월 : 아이오와주립대학교(미학석사)
- 199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실내디자인, 환경심리

김 석 영(Suk-Young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디자인학사)
- 2001년 8월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디자인석사)
- 2012년 2월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실내건축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실내디자인, 공간의 사건성